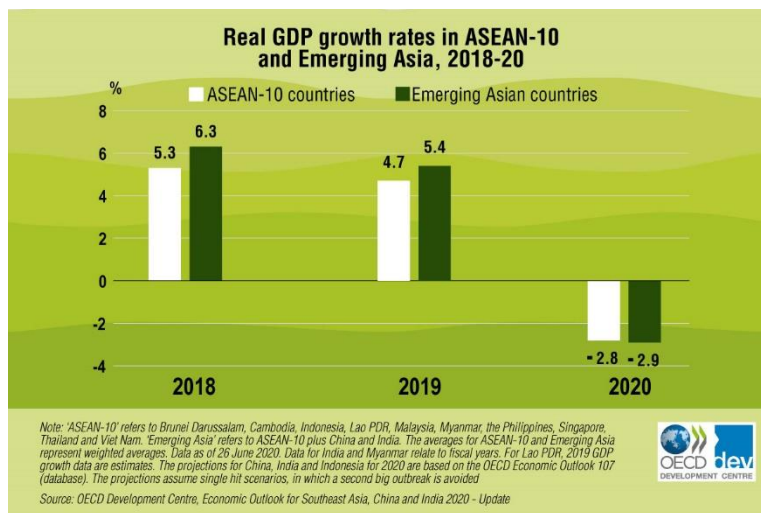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19 팬데믹이 아시아 신흥경제국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2020년 7월 31일, 파리-신흥 아시아 국가의 경제는 코로나 19 위기로 인해 2020년도에 평균 -2.9%로 감소할 것이다. 경제 성장 속도는 아세안 10개국, 중국 및 인도를 포함하는 해당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역사적으로 최저인 상태이다.



오늘 OECD에서 발간한 "동남아시아, 중국 및 인도의 경제적 전망 2020년 업데이트: 코로나 19의 도전과제 해결"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 지역의 성장률은 평균 -2.8%로 감소할 전망이다. 해당 지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반면 현재 잔고는 다음 분기에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러스의 전파를 통제할 수 있었던 신흥 아시아 국가에서는 경기가 회복하기 시작한 반면 인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에서는 여전히 확진자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경제적 기반을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 위기에 대처한 봉쇄령 및 이동 제재는 경제 활동에 큰 타격을 주었다. 금융 시장 및 은행 분야가 불안정한 상태이고, 사업체는



소득 감소 및 부채 증가에 직면하고 있으며, 각 가구는 실업 및 고용 저조로 인한 위험 증가에 노출된 상태이다. 이번 위기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글로벌 가치 사슬을 파괴하였고, 특히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재정적 대응 규모는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써 사상 초유의 규모이다. 통화정책률은 2019년 말부터 30에서 300 베이스 포인트로 낮추어진 반면 일부 국가는 은행의 지급준비 요건을 완화하기도 하였다. 가장 피해를 입은 사업체 및 가구에 세금 감면 혹은 직접 보조금을 통한 재정 지원이 제공되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태국은 다수의 재정 부양책을 개시했다. 코로나 19에 관련된 예산 관련 노력은 특히 이번 위기 이전에 이미 재정적 완충 장치가 부실한 국가에서 재정 정책이 지속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

전세계적 봉쇄 속에서 원격 근무, 화상 회의 및 디지털 학습이 기록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팬데믹은 디지털화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추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흥 아시아 국가는 인터넷을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 디지털 문해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디지털 지불이 전자 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번 위기는 해당 지역의 중요한 여행 및 관광 분야를 초토화했다. 이들 분야는 응급 지원과 더불어 국내 관광을 권장하고, 외국 관광객의 복귀에 대비하며, 복귀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훈련을 제공하는 계획을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보건 분야는 장래의 질병 발생에 대처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적 협업이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OECD 개발 센터는 일본, 한국, 스위스 및 유럽 연합의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동남아시아, 중국 및 인도의 경제적 전망 업데이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www.oecd.org/dev/asia-pacific 를 방문하십시오.



언론인들은 OECD 개발 센터의 아시아 데스크 담당자 켄수케 타나카(Kensuke.Tanaka@oecd.org, 전화: +33 6 27 19 05 19) 혹은 OECD 개발 센터의 언론 사무소의 보크라 크리오우트(Bochra.Kriout@oecd.org, 전화: +33 1 45 24 82 96)에게 연락을 취해 주십시오.
